

전국가맹점주협의회·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국마트협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발 신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 010-6355-3373
 김주호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 : 02-723-5303

제 목 가맹본사는 필수물품 최소화 및 가맹금 인하 협상에 나서라!

일 시 2018. 07. 26(목) 오전 11시
 장 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앞 (서초구 서초대로 248)

보 도 자 료

가맹본사는 필수물품 최소화 및 가맹금 인하 협상에 나서라!

- 프랜차이즈 성장과실 가맹본사 독식으로 가맹점주 고사위기
- 가맹본사, 1년 전 제시한 '자정실천안' 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었나?
- 과도한 유통마진 버리고 합리적 로열티 수익구조로 환골탈태 해야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기자회견 안내 >

일시 : 2018. 07. 26(목) 11:00
 장소 :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앞 (서초구 서초대로 248)
 주최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담당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 010-6355-3373)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국마트협회
 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르노삼성정비사업자연합회·한국지엠정비사업자연합회·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협의회·
 설빙가맹점주협의회·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
 정관장가맹점주협의회·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커브스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빵뜨라피자가맹점주협의회·카페베네전국가맹점주협의회·쌍용자동차서비스
 연합회·더페이스샵가맹점주협의회·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협의회·더푹샵가맹점주협의회·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회·롯데리아가맹
 점주중앙협의회·오피스디포가맹점주협의회·튼튼영어베이비리그가맹점주협의회

1. 수익배분 구조 왜곡으로 성장 과실 가맹본사 독식

프랜차이즈 산업은 일자리 150만 개 창출, 연매출 100조 원을 넘어섰다. 이 중 영업이익 약 7조 5천억 원. 약 2조 5천억 원을 4200여개 가맹본사가 가져가고, 나머지 약 5조원을 22만 명인 가맹점주가 나누는 구조로, 원래 산업의 특성상 상호 보완적으로 경제적 공동체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데, 산업성장 과실을 사실상 가맹본사가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결국, 가맹점주 월평균 소득 230만원 수준에서 불합리한 수익배분 구조로 수익증가는 미미하고 최저임금 등 비용은 대폭상승(2년 동안 약144만 원)하여 이대로라면 가맹점주들은 월 평균소득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벼랑 끝에 놓여 있다. 당장 불합리한 수익구조 개선이 없다면 버틸 수 없고, 이 경우 가맹본사도 생존할 수 없어 자칫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가맹본사는 필수물품을 최소화 하고, 가맹금 인하 협상 요청에 적극 임하여 가맹사업의 수익배분 구조를 합리적으로 교정하고 가맹점주의 지급능력을 개선하여야 한다.

2. 가맹본사, 1년 전 약속한 '자정실천안' 준수하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2017. 10. 27. 가맹본부의 감질관행을 근절시키겠다는 대국민 약속에 따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이하 '자정안)」을 발표했다. 자정안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실천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합리적 대가관계 형성 기반을 위해 소속사에 '정액제 또는 정률제에 의한 로열티 체제로 조속히 전환할 것과 정률제에 의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의 정직성이 담보되도록

권고'하고 스스로 이를 실천하겠다고며 국회에 입법을 통한 규제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단 한 개 가맹본사라도 유통폭리를 근절하고 로열티 체제로 전환한 가맹본사가 있는가? 가맹점주의 권익이 얼마나 보장되었나?

가맹본사는 더 이상 가맹점주와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스스로 한 약속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3. 과도한 유통마진 버리고 합리적 로열티 수익구조로 환골탈태해야

여전히 가맹본사의 주 수익이 유통과 인테리어 공사 마진에 있어 유통업, 인테리어 공사업 성격이 강한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은 현재 한계에 봉착하여 불공정 문제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아직까지는 프랜차이즈가 갖는 경쟁력으로 산업이 꾸준히 성장해 왔지만 지금 문제를 해결하여 성숙된 구조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그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통마진 · 인테리어 공사가 중심인 가맹본사 불합리한 수익구조를 가맹점주 수익에 근거한 로열티 중심으로 바꿔내야 한다. 단순히 가맹점주를 쥐어짜내는 방식에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사업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합리적인 배분구조로 산업의 주요 주체인 점주들도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가맹본사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여 필수물품을 최소화하고 가맹금을 인하하여 상생에 나서야 한다

가맹본사가 부당하게 수익을 가져가는 통로는 소위 '필수물품'이라는 원부자재 공급을 통해서이다. 필수물품을 시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공산품·농산품까지 무분별하게 넓게 설정한 다음 유통폭리를 취하여 가맹점주의 수익을 악화시키고 가맹사업의 성장 또한 저해하고 있다. 이는 가맹점주는 물론 가맹본사와 전체산업을 위협하는 것이다. 공존하기 위해서,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필수물품을 최소화하고 가맹금을 인하하여 가맹점주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원부자재 등 유통은 점주들의 공동구매나 본사까지 참여하는 구매협동조합에 맡기고 가맹본사는 본연의 업무인 노하우·기술개발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맹본사는 가맹점주와 함께 생존하기 위한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끝.

참고.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가맹본사는 필수물품 최소화하고 가맹금 인하협상에 나서라!

가맹점주·자영업자·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 2018년 7월 26일(목) 오전 11시

○장소 :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앞 (서초구 서초대로 248, 서초역 1번 출구)

○주최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주요요구사항

- 필수물품을 최소화하라.
- 가맹금 인하 협상에 적극 응하라

○사회 : 권성훈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총무

○순서

모두발언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파리바게뜨)

연대발언 1 :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민변 부회장

연대발언 2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발언 1 : 자동차서비스 불공정

김운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르노삼성)

발언 2 : 가맹본사의 협상요청 거부

윤혜순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회장

발언 3 : 필수물품 합리화

정진명 뚜레쥬르협의회 사무국장

구호제창 및 퍼포먼스

필수물품 최소화 및 가맹금 인하 협상 요구서 전달 끝.